

## 다문화·한부모가족 지원,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

-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, 약자복지·저출산 대응에 집중 투자  
민간보조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절감

### ◆ [약자 복지]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, 위기청소년 및 폭력 피해자 등 지원 강화

- \*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: (소득기준) 중위소득기준 60% → 63%이하, (지원기간) 만 18세 미만 →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, (단가) 20만원 → 21만원, 청소년한부모(24개월 미만 자녀) 양육비 추가 지원
- \*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138개소 → 168개소 확대, 정서·진로상담 113개소 → 143개소 확대,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및 결혼 이민자직업훈련과정 신설
- \*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지원(105개소 신설),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
- \* 스톡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(10개소 → 17개소) 운영, 가정폭력 피해자(폭력피해이주여성 포함)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, 성폭력 피해 아동·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(25개소 → 38개소)

### ◆ [저출산 대응 및 일자리 지원]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 확대

- \* 아이돌봄 지원 확대 8만 5천 → 11만 가구, 두 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10% 추가 지원, 돌봄수당 인상 : 9,630원 → 10,110원 (5%↑)
- \* 새일센터 디지털·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 확대(74개 → 79개)

### ◆ [지출구조 혁신] 민간단체 보조사업, 유사·중복 사업 등 통폐합

- \* 양성평등 가족청소년분야 관행적 민간단체 공모사업 폐지
- \* 부처간 유사·중복 등 실효성 미흡 사업 폐지

□ 여성가족부(장관 김현숙)는 2024년 예산안에 ▲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▲ 성폭력·가정폭력·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▲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.

□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단체 공모사업(양성평등·가족·청소년 분야), 부처간 유사·중복 사업을 통·폐합\*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예산을 효율화하는 한편, 절감된 예산으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.

\* 부처 간 유사·중복 사업 : 학교폭력 예방(⇒교육부), 청소년근로권익 보호(⇒고용부),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(⇒법무부)

□ 2024년 여성가족부 정부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*① 한부모·다문화 가족 및 위기·취약가족 등 지원 확대**

-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5,356억 원(증 397억 원)
-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485억 원(증 278억 원)
- 취약위기 가족 통합사례관리 신규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343억 원(증 239억 원)

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%에서 63%이하로 확대하고,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.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.

\* 기준 중위소득(2인가구, 2024년 기준) : 중위소득 63%(232만원)

②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(138개소 → 168개소)하고, 정서·진로상담(113개소 → 143개소)을 확대한다.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\*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,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진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지원을 신규로 제공한다. 또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취업지원도 강화한다.

\* 중위소득 50%~100%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·중·고 자녀 대상 교육급여의 80% 수준 지급

- ③ 지역단위에서 가족의 유형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부모·조손·다문화·1인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 오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, ‘취약·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’을 신규로 추진(가족센터 180개소) 한다. 또한,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(395개소 → 435개소)를 확대한다.

## ② 저출산 대응 및 일자리 지원

- 아이돌봄 서비스,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, 지원가구 확대 및 돌봄수당 인상 4,678억 원(증 1,132억 원)
-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등 217억 원(증 3억 원)

- ①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,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%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.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확대(8만 5천 가구 → 11만 가구)하고, 돌봄수당을 9,630원에서 10,110원으로 5% 인상한다.
- ②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확대(74개→79개)한다.

## ③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

- 자살·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 강화 25억 원(증 22억 원)
- 은둔·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신규 실시 11억 원(신규) 및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확대 43억 원(증 7억 원)
-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6억 원(증 2억 원) 및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148억 원(증 12억 원)

- ① 위기청소년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확대(6개월→1년)하고, 자살·자해 고위기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까지 포괄하는 집중심리클리닉을 본격 운영(105개소)한다.
- ②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을 은둔 청소년,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은둔·고립 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규 실시한다.
- ③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(월 40만 원)을 확대(3년→5년)하는 한편,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정부 지원을 확대(187천 명→201천 명) 한다.

#### ④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

-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전국 확대 24억 원(증 10억 원)
- 성폭력 피해 아동·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 17.7억(증 4.7억 원)
-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5억 원(신규)

- ①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(10개소→17개소)하고 CCTV 등 시설 안전도 지원한다.
  - ②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각 1개소 추가로 설치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확대(25개소→38개소)한다.
  - ③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(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) 퇴소 시 피해당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립지원금(1인당 500만원)을 피해자 동반아동까지(1인당 250만원) 확대 지원한다.
  - ④ 신중, 복합, 고난도 폭력 피해 발생 대응을 위해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을 확대(2개소→5개소)한다.
-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위기청소년,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.”라며,
- “다른 복지 정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살펴보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#### 【붙임】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개요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기획조정실<br>기획재정담당관 | 책임자 | 과 장 | 김민아 (02-2100-606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류효현 (02-2100-6068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주무관 | 홍승우 (02-2100-6072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주무관 | 강내일 (02-2100-6071) |

□ **총괄 : '24년 정부안은 총 1조 7,153억 원**

(범피포함, 백만원, %)

| 구 분             | 2023년            | 2024년            | 증 감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본예산(A)           | 정부안(B)           | 전년대비 (B-A)     | %          |
| <b>총 계</b>      | <b>1,567,770</b> | <b>1,715,278</b> | <b>147,508</b> | <b>9.4</b> |
| 양성평등 정책 (14.0%) | 246,932          | 240,736          | △6,196         | △2.5       |
| 양성평등 (6.3%)     | 109,039          | 108,139          | △900           | △0.8       |
| 권익보호 (7.7%)     | 137,893          | 132,597          | △5,296         | △3.8       |
| 청소년 정책 (13.7%)  | 252,498          | 235,180          | △17,318        | △6.9       |
| 가족 정책 (69.8%)   | 1,026,269        | 1,196,970        | 170,701        | 16.6       |
| 행정 지원 (2.5%)    | 42,071           | 42,392           | 321            | 0.8        |

□ **정책 분야별 현황**

- (양성평등)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, 스톡킹피해자 지원 사업 전국 확대, 폭력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, 폭력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등
- (청소년정책)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,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및 은둔고립 청소년 지원 신규 추진 등
- (가족정책) 아이돌봄 지원 수당 인상 및 다자녀 지원 확대,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및 단가 인상,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강화,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신규 추진 등

※ 여성가족부 연도별 예산

(단위 : 억 원)

| 구 분 | '20년   | '21년   | '22년   | '23년   | '24년 정부안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총지출 | 11,191 | 12,325 | 14,650 | 15,678 | 17,153   |